



## 한 가닥 한 가닥 촛불은 선을 전하다

천여 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로스앤젤레스 중국영사관 앞에서 촛불 추모 집회를 열다.

(밍후이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보도) ‘우리 함께 촛불을 켜고 가지런히 앉자.’ 음악소리와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와 ‘쩐(眞), 썬(善), 런(忍)’ 이 새겨진 노란 옷을 입은 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천천히 촛불을 들고 두 눈을 감았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온 서로 다른 민족이다. 이 깊은 어두운 밤에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박해로 사망한 중국대륙의 파룬궁수련생들을 깊이 애도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 16년 비바람 노정을 환히 비추는 촛불

2015년 10월 15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중국영사관 도로 옆에는 촛불로 이어졌다. 어떤 파룬궁수련생은 ‘파룬따파는 좋다!(法輪大法好),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을 천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장쩌민을 사법 처리하라’ 등 현수막을 펼쳤고 어떤 수련생은 중국 공산당의 고문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생의 영정을 든 채 조용히 밤의 장막 속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장면이 장엄하고 엄숙하면서도 상서롭고 평온했다. 많은 행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이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금년 5월부터 중공 사법부서에서는 ‘안건은 반드시 입건하고, 기소한 것은 반드시 심리한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 대륙의 19만 명 파룬궁수련생, 가족과 민중들은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고발, 고소장을 발송하여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발, 고소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의 매 한 부의 고소는 모두 피눈물로 써낸 것이었다. 몇 천 글자로 집약된 파룬궁수련생과 그들 가족의 16년 동안의 불행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읽어 내려 갈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뿔뿔이 흩어 졌고, 얼마나 많은 어린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잃고 경시와 괴롭힘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보살피는 사람도 없이 외롭고 고생스러워 의거 할 곳이 없게 됐던가. 심지어 흰머리노인이 검은 머리 젊은이를 보낸 비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잃고 청춘을 허비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리 걸식하면서 떠돌이 고생을 겪어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에 혹은 현재 감옥에서 ‘전향’(핑박으로 파룬궁수련을 포기하게 함)하는



2015년 10월 15일 저녁, 파룬궁 수련생들은 로스앤젤레스 중국영사관 앞에서 촛불추모집회를 열었다.

고문박해를 당해 매분 매초마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가……세인들이 어찌 신변에서 보기에선 보통사람들과 다름없는 파룬궁수련생들이 16년간 감당한 고난이 인류고난의 극한에 이르렀음을 상상조차 할 수 있으랴. 하지만 이 불행의 원인은 장쩌민이 수련생들의 신앙에 대한 견정과 선량에 대한 견지를 두려워해서였다.

### 선량한 정보는 마음을 꿰뚫고 쫓아낸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파룬궁수련생 아리커상더라(阿里克桑德拉)와 부인 아미나(阿米娜)는 조용히 길옆에 서있었는데 그들의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기에 엄숙하면서도 또 확고해 보였다. “우리는 아주 먼 우크라이나로부터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번 행차의 목적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공동한 염원이 하나의 강대한 선(善)의 힘으로 이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국 사람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서 발생한 박해를 관심하는가에 대해 아리커상더라

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참하게 살해까지 당하는 것을 선량한 사람은 누구도 모두 용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산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과거 30~40년이란 긴 시간 쏘련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공산당은 곧바로 한 개 살인기계입니다. 그의 존재는 더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인한 박해는 한차례 신앙에 대한 박해입니다. 한 무리 ‘진선인(真善忍)’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중공의 탄압은 당년 쏘련 공산당 보다 더 사악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파룬궁수련생의 표현에 대해 분분히 “아주 이성적이고도 평화적이며 아주 장엄하면서도 엄숙합니다. 파룬궁수련생의 표정으로부터 그들의 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사람을 감동 시킵니다.”라고 표시했다. ◇

## 남편이 박해로 사망한 지린 위수시 덩리취안(邓丽娟)이 또 박해 받고 있다 (간략)

(밍후이 기자 지린 보도) 2015 년 8 월 지린 위수(榆树)시 파룬궁수련생 덩리취안(邓丽娟)과 천슈원(陈秀云)은 둔화시의 친척집에 왔다가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감시 카메라에 위치를 추적당해 둔화시 흥치지역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덩리취안은 머리 카락이 한 줄이나 뺨혔고 기절해 쓰러진 덩리취안에게 악인들은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두 사람은 또 옌지시 공안국 경찰에게 끌려갔는데 천슈원은 풀려 나왔지만 덩리취안은 계속 불법으로 감금 되어 박해 받고 있다. 연로한 덩리취안의 부친이 딸을 내놓으라고 찾아갔지만 악인들은 사람을 풀어 주기는커녕 만나보지도 못하게 했다.

### 남편 정푸상(郑福祥)이 박해 받아 사망한 정황

2002 년 3 월, 창춘 파룬궁수련생들이 유선 텔레비전을 이용해 대법진상을 삽입 방송한 후 악인들이 지린성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미친 듯이 전면적으로 납치했다. 그때에 칭산향 파출소 소장 장더즈는 악경들을 데리고 밤에 정푸상의 집에 아무런 법률수속이 없이 창문을 부수고 뛰어 들어와 정푸상의 머리, 흉부, 아랫배와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혹독하게 구타했다.

그때 정푸상은 매를 맞아 땅에 쓰러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칭산향 파출소에 납치 되어 철 의자에 묶이어 또 혹독하게 맞았다. 사악한 경찰들은 사실을 왜곡한 소위 ‘죄증’을 만들어 그를 위수시 공안국에 보내 계속 박해했다. 공안국 국보대대 스하이린 등 한 무리 악경들은 전기곤봉으로 충격하고 주먹과 발로 정푸상의 흉부와 복부를 혹독하게 구타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문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구실로 정푸상을 구류했다. 구류기간 정푸상은 계속 각종 고문을 당했는데 단식으로 불법감금 등 박해에 항의 했다. 구치소 악경들은 억지로 손가락 굵기만 한 고무호스를 정푸상의 코에서 위에 까지 밀어 넣고는 진한 소금물을 주입했다.

창춘시 초양거우 노동교양소 교육 5 대 신생반(新生班) 1 중대에서 정푸

상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6~7 명의 형사범들이 둘러싸고 파룬궁을 연마하는가 안 하는가 물었다. 정푸상이 아무런 주저도 없이 한다고 대답하자 한바탕 혹독하게 때렸는데 온 얼굴, 명치 끝, 발목,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쇠 파이프로 등과 허리를 때려 당시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었다. 악경과 형사범은 속인하면서 또 전기곤봉으로 때렸다. 때린 다음 악경은 정푸상의 옷을 벗기고 경문을 갖고 있는지 검사했는데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검사가 끝난 다음 또 목욕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4~5 명 범인이 목욕을 시킨다면서 2 개의 큰 물통에 찬물을 채워 놓고 세숫대야로 퍼 내어 정푸상의 몸에 끼얹었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 끼얹으면서 “연마 하겠니 안 하겠니? 전향하고 말아라, 그래야 육체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정푸상이 연마 하겠다고 말하자 또 한바탕 혹독하게 때리고는 계속 찬물을 끼얹었다. 2 통의 물을 몽땅 끼얹어 몸은 얼어 마비 되었지만 형사범은 창문을 열어놓고 통풍하면 몸이 빨리 마른다고 했다.

그때는 바로 초봄이라 정푸상이 얼어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한 시간 후에야 옷을 입게 했다. 악도들은 연공하면 매일 때린다고 위협했다. 감방에 돌아온 다음 악도들은 정푸상을 강박해 머리를 벽에 박고, 손은 머리 뒤로 감싸 쥐고 꾸그리고 얹아 두 무릎을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더러 쪽 걸상에 앉게 하고 매일 대법을 모독하는 비디오를 보게 했다.

6 대대 악경은 전기곤봉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신체 각 부위를 혹독하게 때린 다음 옷을 벗겨놓고는 삼

각 가족따로 온 몸을 때려 피부가 터져 상처가 나자 상처에 소금을 치고 손으로 비비어 고통스럽게 했다. 또 끈으로 다리를 틀어 묶은 다음 시멘트 바닥에 앉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문을 했다. 정푸상은 맞아 엄청난 내상(内伤)을 입어 기침을 하고, 신체는 극도로 허약해졌지만 매일 체력을 초과한 노동을 시켜 상처는 점점 악화되었고 고열이 내리지 않았다. 정푸상은 시달림으로 숨만 붙어 있었고 심하게 각혈했다. 노동교양소에서는 안에서 죽으면 책임이 두려워 2004 년 4 월 6 일에 가족에게 알려 정푸상을 집에 데려오게 했다. 이튿날(4 월 7 일)아침 4 시에 정푸상은 한을 품은 채 사망했는데 그 해 겨우 35 세였다.

### 끝이 없는 박해

정푸상이 박해로 사망한 당일, 칭산향 파출소소장 악경 장더즈는 또 수하를 거느리고 차를 몰고 그의 집에도 감시했다. 덩리취안은 남편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남편한테 마지막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았다. 덩리취안이 남편 후사처리 하러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장더즈는 또 부하 마가이 등을 거느리고 기세 등등해서 묘지에 와 덩리취안을 납치하려 했다. 덩리취안은 박해를 피해 또 유리걸식하게 되었다.

13 세 밖에 안 되는 덩리취안의 아들은 돈이 없어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살아 나갈 수 있었기에 생활은 간고 했고, 정신적 압력이 아주 컸으며 어린 심령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 2010 년 6 월 21 일, 상심과 걱정 때문에 해매던 아들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문시연: 전기곤봉으로 충격.



### 연변박해소식

지린성 투먼시 (图们) 파룬궁수련생 위젠민(于建民) 납치되다

10 월 26 일 오후 2 시 40 분경 지린성 투먼시 파룬궁수련생 위젠민(于建民)은 북대시장에서 탁상용 달력을 배포하던 중 사복 경찰에게 납치됐다